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 변화: 1999~2013 신문기사 내용분석을 통하여

박 경 빈

박 현 진

윤 혜 정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999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4년 2개월간의 국내 주요일간지에 실린 예술영재 관련 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5개 주요일간지의 예술영재 관련 기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사의 건수는 모두 1,281건이 나타났고, 기사의 양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2002년, 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계획이 발표된 2007년, 예술영재를 비롯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다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예술영재 영역별 관심의 정도는 음악영재 3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용영재 61건, 미술영재가 61건, 문학영재 21건으로 음악영재에 대한 관심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유목별 기사의 양은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에 대한 기사 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술영재 교육정보에 대한 기사 193건, 예술영재를 위한 사회 환경에 대한 기사 176건,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기사 164건, 그리고 정책의 현황과 동향에 대한 기사 151건이었다.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기사의 내용은 영재교육·예술영재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었지만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우려와 예술영재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술영재 분야별 판별 기준,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철학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가 있었다.

주제어: 영재 인식, 예술영재, 음악영재, 미술영재, 무용영재, 문학영재, 신문기사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된 이후 ‘영재’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공식화되고 ‘영재교육’이라는 분야도 공식적 교육 분야로 인식되게 되었다. 정부는 영재교육이 본격화되기 전, 영재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월성’을 먼저 인정하여 1985년에서 1987년까지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교육개혁심의회는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수월성의 추구’ 등 9가지의 교육개혁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의 공포와 시행으로 영재교육이 현실화되고 영재교육이 공식화됨으로써, 영재교육의 중요한 쟁점인 영재에 대한 정의, 영재의 판별과 선발, 영재교육과정, 영재교육 인력, 영재교육기관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영재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만큼, 영재교육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와 대중적 관심은 대부분이 수학·과학영재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 입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것과 함께, 1998년 대학의 과학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수학·과학영재교육이 먼저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술영재에 대한 연구가 전체 영재연구 중 10% 내외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수학·과학영재 연구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박경빈, 2012).

예술영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감에 따라, 예술영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수학·과학영재 연구에 집중된 영재연구에 예술영재라는 아직은 미진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1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후 예술영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신문에 나타난 예술영재 관련 기사의 양은 어떠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둘째, 신문에 나타난 예술영재 관련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하기 위해 신문기사를 분석하였으므로 다음에 신문의 기능과 특성, 분석대상의 범위, 분석 목적, 분석 방법,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 모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1. 신문의 기능과 특성

어떤 분야의 사회적 인식과 그 변화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신문기사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유용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신문의 기능과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유일상(2006)은 신문의 기능이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기본적인 기능과 부수적인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기본적인 기능은 세 가지로 첫째, 일어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둘째,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사실을 통해 논평하고, 셋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제공한다. 부수적인 기능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여론을 일으킨다, 둘째, 만화, 만평 등의 읽을거리로 오락적 기능을 한다, 셋째, 각종 생활정보와 함께, 권리의 이행과 수호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신문의 기본적인 기능과 부수적인 기능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사회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신문은 우리 주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와 일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그 정보의 의

의를 살피기 위한 논평,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다양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 신문이라는 매체는 적합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예술영재에 대한 정책의 변화, 예술영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점검하고 예술영재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와 발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신문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분석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예술영재와 관련된 신문기사로 주요일간지 중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5개를 선택하였다. 2012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신문사별 시장점유율이 경향신문 4.0%, 동아일보 13.1%, 조선일보 30.7%, 중앙일보 18.9%, 한겨레 3.9%(한국언론진흥재단, 2012)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점유율에서 높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점유율은 낮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과 다르게 진보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1999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로 14년 2개월이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영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이 제정되기 전과 후, 그리고 최근까지 예술영재에 대한 신문기사의 양과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의 신문기사는 한국언론재단 미디어포털 서비스 카인즈를 통해서 얻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카인즈에서 기사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조선일보 아카이브와 중앙일보 미디어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얻었다.

검색 키워드는 예술영재, 음악영재, 미술영재, 무용영재, 문학영재 등으로 하였다. 검색을 통해 얻어진 신문기사 중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검색 키워드가 언급된 기사, 검색 키워드는 아니지만 국악영재·발레영재 등과 같이 검색키워드의 분야가 언급된 기사이다. 또한, 영재교육에 관한 기사에서 예술분야의 영재교육을 언급한 기사는 예술영재에 대한 정책의 현황과 의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색키워드가 언급되었지만 그 내용이 예술영재를 다룬 것이 아니면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3. 분석유목

선행연구(오레지나, 2007; 김재은, 2006)와 예술영재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분석유목을 정리하였다.

첫째, 정책의 현황과 동향으로 예술영재 관련한 법, 제도, 정책의 현황, 동향, 행정적인 시책 등을 다룬 기사들이 포함되었다. 둘째, 정책의 의의와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술영재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 예술영재교육의 발전과제 및 방향 제시, 해외사례 소개 및 해외사례 소개를 통한 방향 제시로 나누었다. 셋째,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은 재능을 발휘하는 무대가 되는 콩쿠르의 소개, 심사평, 입상 소감 등을 다룬 기사, 예술영재들이 펼치는 공연, 전시회, 음반 발매 등의 소식을 다룬 기사, 그리고 음악영재, 미

술영재, 무용영재, 문학영재 등 예술영재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나누었다. 넷째, 예술영재 교육정보는 예술영재교육기관과 교육자를 소개한 기사와, 예술영재캠프 등을 소개한 교육프로그램을 다룬 기사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예술영재의 사회환경에 대한 분류이다. 예술영재를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와 함께 기업의 메세나를 다룬 기사, 예술영재들의 활동 공간인 공연장과 전시장을 소개하는 기사, 예술영재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 기사,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술영재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범위를 어떤 기준을 두고 시기별로 나누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분석기간 동안 예술영재 관련 신문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유목을 <표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예술영재 신문기사 분석유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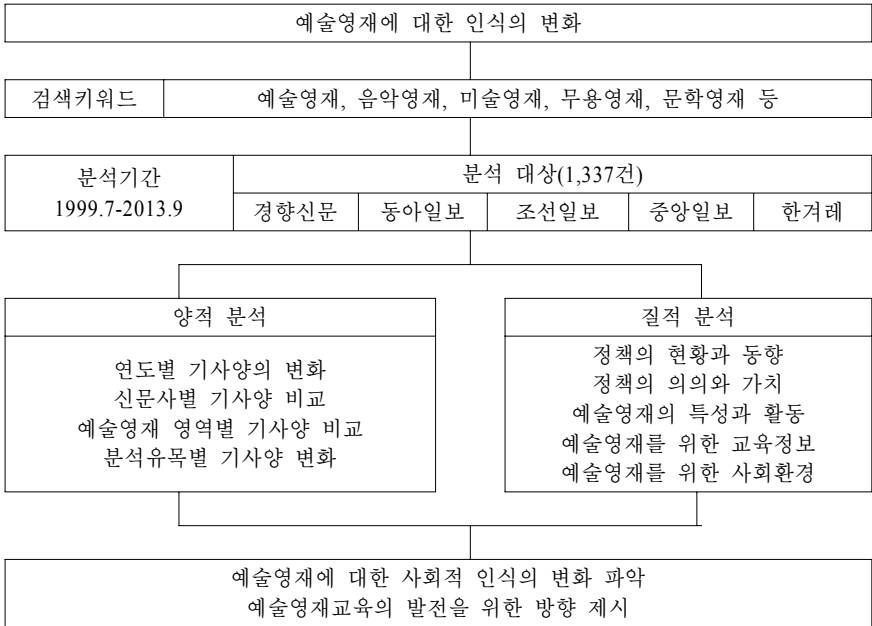
분석유목	분석유목에 포함되는 기사의 분류
1. 정책의 현황과 동향	예술영재 관련 법, 정책의 현황과 동향, 행정적인 시책 등
2. 정책의 의의와 가치	예술영재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 예술영재교육의 발전 과제 및 방향 제시 해외사례 소개 및 해외사례를 통한 예술영재교육의 방향 제시
3. 특성과 활동	콩쿠르 등의 경연 소식 공연, 전시회, 음반 소식 등 예술영재 인물 소개
4. 교육정보	예술영재교육기관과 교육자 소개 예술영재 교육프로그램 소개
5. 사회환경	예술영재를 지원하는 개인, 단체, 기업 예술영재의 활동 공간 예술영재를 통한 국제교류 지역발전과 예술영재

4. 분석 방법

신문기사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Berelson(1959)은 내용분석을 ‘커뮤니케이션의 명백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또한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연구기법’이라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를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분석하고자 했다. 내용분석의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 2명의 연구자가 기사내용을 분류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에서 사용되는 신뢰도 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뢰도 계수 CR=918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5.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신문기사 분석결과

1. 신문기사의 양적분석

예술영재에 대한 신문기사의 양적분석 결과는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연도별 전체 예술영재 기사의 양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둘째, 주요일간지 5개 신문사의 예술영재에 대한 기사의 양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셋째, 음악영재, 미술영재, 무용영재, 문학영재 등 예술영재 하위 영역별 기사의 양은 어떠한지 비교하였다. 그리고 넷째, 기사의 내용에 따른 분석유목별 기사의 양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가. 연도별 전체 예술영재 기사량의 변화

주요일간지 5개 신문사에 나타난 예술영재에 대한 기사의 건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모두 1,281건이다. 연구기간 동안 기사의 분포를 보면 2010년에 13% 2012년에 12%, 그리고 2011년에 10.5%, 2013년 9월까지 9%의 순으로 기사의 양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사의 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2년에 65건, 2007년에 93건, 2009년에 121건으로 예년보다 기사의 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전과 제정된 후, 그리고 시행된 후의 기사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2> 연도별 신문기사의 수

연도	기사 수	%
1999(7~12월)	21	1.5
2000	31	2.4
2001	54	4.2
2002	65	5
2003	51	4
2004	57	4.4
2005	60	5
2006	70	5.4
2007	93	7.2
2008	88	7
2009	121	9.4
2010	166	13
2011	137	10.5
2012	154	12
2013(1~9월)	113	9
합계	1,281	100

과 같다. 1999년에 21건, 법이 제정된 2000년에 31건, 그리고 법이 시행된 2002년에는 65건이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2002년에 기사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나. 신문사별 예술영재 기사량의 비교

신문사별 기사량을 보면 동아일보가 368건(28.3%)로 5개 신문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조선일보가 274건(21.3%), 경향신문이 246건(19.2%), 중앙일보가 202건(16.0%)를 보이며, 마지막으로 한겨레가 191건(15.2%)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일간지 5개 신문사 중,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2개 신문사의 기사 수가 642건(49.6%)으로 절반 가까이 됨을 알 수 있다.

다. 예술영재 하위 영역별 기사량의 비교

예술영재 하위 영역의 경우는 분석유목 중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에 해당하는 597건의 기사 중 예술영재의 하위 영역이 드러난 522건을 분석하였다. 예술영재 영역 중 어떤 분야의 기사가 주로 다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위 영역인 음악영재, 미술영재, 무용영재, 그리고 문학영재의 기사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음악영재에 관한 기사가 379건(72.6%), 미술영재에 관한 기사가 61건(11.6%), 무용영재에 관한 기사가 61건(11.6%), 그리고 문학영재에 대한 기사가 21건(4.2%)으로 나타났다.

1) 정책의 현황과 동향

예술영재에 관한 정책의 현황과 동향에 대한 연도별 기사의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정책의 현황과 동향 기사의 수

연도	기사 수	%
1999(7~12월)	0	0
2000	1	0.6
2001	8	5.2
2002	14	9.2
2003	2	0.2
2004	13	9.0
2005	7	5.0
2006	8	5.2
2007	17	11.2
2008	12	8.0
2009	11	7.2
2010	11	7.2
2011	15	10.0
2012	16	11.0
2013(1~9월)	16	11.0
합계	151	100

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9년에는 정책의 현황과 동향에 대한 기사가 없으며,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2000년에는 1건으로 나타났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2002년에 14건(9.2%)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도 13건(9.0%)로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7년 17건(11.2%), 2008년 12건(8.0%), 2009년 11건(7.2%)으로 2002년, 2004년과 함께 최근 3년 동안 예술영재 교육에 대한 정책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의 의의와 가치

예술영제에 대한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기사는 전체 164건이다.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에 관한 기사는 39건, 발전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한 기사는 90건, 해외사례 소개 및 해외 사례를 통한 방향 제시는 35건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기사 수

연도	분석유목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	발전과제 및 방향 제시	해외사례를 통한 방향 제시	합계
1999	1	3	2	6
2000	1	1	0	2
2001	4	4	5	13
2002	7	6	3	16
2003	1	2	6	9
2004	5	2	0	7
2005	0	5	1	6
2006	3	4	0	7
2007	3	6	3	12
2008	1	8	4	13

2009	3	5	3	11
2010	1	5	4	10
2011	5	17	2	24
2012	1	15	2	18
2013	3	7	0	10
합계	39	90	35	164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기사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1년이 13건, 최근 3년 동안인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각 24건, 18건, 10건으로 10건 이상 나타났다.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의 경우 2002년에 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발전과제 및 방향 제시의 경우 2011년에 1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사례 소개 및 해외사례를 통한 방향 제시의 경우 2003년에 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3년 동안은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에 대한 기사와 발전 과제 및 방향 제시에 대한 기사의 양이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하지만 2005년 이후로는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에 대한 기사보다 발전 과제 및 방향 제시에 대한 기사의 양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해외사례에 대한 기사의 경우 2002년을 중심으로 해서 2001년과 2003년에 기사의 양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3)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에 관한 기사는 모두 597건을 보인다. 콩쿠르 등의 경연 소식에 대한 기사는 119건, 예술영재들의 공연, 전시회, 음반 등의 소식은 234건, 그리고 예술영재 인물을 소개한 기사는 244건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에 관한 기사 수

연도	분석유목	콩쿠르 등의 경연 소식	공연, 전시회, 음반 소식 등	예술영재 인물 소개	합계
1999(7~12월)		2	7	0	9
2000		3	6	4	13
2001		4	10	5	19
2002		11	5	2	18
2003		4	11	4	19
2004		8	6	7	21
2005		7	9	2	18
2006		12	4	15	31
2007		9	7	18	34
2008		9	15	10	34
2009		17	19	21	57
2010		9	57	45	111
2011		9	31	35	75
2012		14	26	49	89
2013(1~9월)		1	21	27	49
합계		119	234	244	597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에 대한 기사 수는 2010년이 111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세부 분석유목에서도 콩쿠르 관련 기사 9건, 공연, 전시회, 음반 등의 소식이 57건, 예술영재 인물 소개가 45건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예술영재에 대한 특성과 활동에 대한 기사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예술영재 인물 소개는 2010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예술영재의 공연, 전시회, 음반 소식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하강하고 증가하는 흐름을 반복하다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에서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술영재에 대한 콩쿠르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2002년과 2006년, 그리고 2009년, 2012년에서 평년보다 기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예술영재 교육정보

예술영재 교육정보에 대한 기사의 경우 예술영재교육기관과 교육자에 대한 소개 기사가 105건, 예술영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는 88건으로 모두 193건이 나타났다<표 6>.

<표 6> 예술영재 교육정보에 대한 기사의 수

연도	분석유목	교육기관과 교육자	예술영재 교육프로그램	합계
1999(7~12월)		1	4	5
2000		5	4	9
2001		6	2	8
2002		6	6	12
2003		7	5	12
2004		5	5	10
2005		12	5	17
2006		4	6	10
2007		6	6	12
2008		8	6	14
2009		8	10	18
2010		12	11	23
2011		8	6	14
2012		8	8	16
2013(1~9월)		9	4	13
합계		105	88	193

2010년에 23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 수를 보이며, 2002년부터는 모든 연도에서 기사 수가 10건을 넘고 있다. 분석유목별로 순위를 보면 예술영재교육기관과 교육자에 대한 기사는 2005년과 2010년 12건으로 가장 많고, 예술영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는 2010년에 11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예술영재 교육정보 중 교육기관과 교육자에 대한 기사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이 설립된 2005년에 기사의 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사의 수는 2001년에 평년보다 떨어졌다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비슷한 양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5) 예술영재를 위한 사회환경

예술영재를 위한 사회환경에 대한 기사는 모두 176건이다.

사회환경에 대한 분석유목별 순위로 살펴보면, 예술영재를 지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한 기사 수가 128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예술영재가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기사 수 22건, 지역발전과 예술영재에 대한 기사의 수 22건, 그리고 예술영재 국제교류에 대한 기사의 수 4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7>.

<표 7> 예술영재를 위한 사회환경에 관한 기사 수

연도 \ 유목	예술영재를 지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	예술영재 활동공간	예술영재를 통한 국제교류	지역발전과 예술영재	합계
1999	0	1	0	0	1
2000	3	3	0	0	6
2001	2	4	0	0	6
2002	0	4	0	1	5
2003	7	1	1	0	9
2004	5	0	0	1	6
2005	10	1	0	1	12
2006	10	1	1	2	14
2007	14	0	0	4	18
2008	12	1	0	2	15
2009	21	2	0	1	24
2010	6	2	0	2	10
2011	15	1	1	2	19
2012	10	0	1	2	13
2013	13	1	0	4	18
합계	128	22	4	22	176

이를 더 자세히 보면 예술영재를 위한 예술영재의 활동공간, 예술영재를 통한 국제교류, 지역발전과 예술영재에 대한 기사는 연도별 흐름에서 5건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영재를 지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한 기사의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3년, 2007년, 그리고 2009년 이후로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신문기사의 질적 분석

예술영재에 대한 신문기사의 질적 분석 결과는 분석유목에 따라서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예술영재 관련 정책의 현황과 동향, 둘째, 예술영재 관련 정책의 의의와 가치, 셋째, 예술영재의 활동과 특성, 넷째, 예술영재 교육정보, 그리고 다섯째, 예술영재의 사회환경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가. 예술영재 관련 정책의 현황과 동향

신문기사에 나타난 예술영재 관련 핵심적 정책을 발표 시기, 발표된 정책, 예술영재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예술영재 관련 정부 정책

발표 시기	발표된 정책(담당 정부부처)	예술영재 관련 내용
2001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확정 (교육인적자원부)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은 과학 외에 예술, 체육에서도 설치 가능
2001년 3월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 발전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예술적 능력의 판별: 전문가 추천, 경연대회 입상, 교사 추천
2002년 4월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에 관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장 재량으로 수학, 과학, 예술분야의 영재학급 주당 1~8시간 실시 선화예고, 국립국악고 등에 중학교 대상 예술영재교육원 설립
2002년 11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교육인적자원부)	예술영재학교 2007년 개교를 목표로 방안 마련하기로
2004년 2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계획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을 수학·과학에서 예술, 정보, 창작, 발명, 영어 등으로 늘림
2004년 12월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10년까지 수학·과학 중심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 창작 등의 분야로 확대
2005년 1월	학력신장방안(서울시교육청)	2006년 초등의 예술과 정보 영재교육이 포함
2006년 1월	2차 국가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교육인적자원부)	수학, 과학, 정보, 예술, 창작, 언어 등 60종에 걸쳐 영재관별도구 개발·보급하기로
2007년 3월	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문화관광부)	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
2007년 4월	통합형 영재학교 설립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수학, 예술, 철학, 분야 영재의 연계 교육 강화
2007년 6월	체육 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2007년 8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30년까지 한국교육의 밑그림, 영재 선발과 교육을 수학, 과학에서 예체능 등으로 다양화
2007년 12월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2008-2012년(교육인적자원부)	예술, 체육 분야 영재학교 신설,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초등1년 이상으로 확대
2008년 3월	제2차 영재교육종합발전계획: 2008-2012년(서울시교육청)	2009년부터 초·중·고교 여섯 곳에 음악, 미술, 문예창작 영재학급의 시범 개설
2012년 11월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예술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행정수도 세종시와 수도권 광역시 인천에 각각 영재학교 개교.

나. 예술영재 관련한 정책의 의의와 가치

1) 예술영재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

전반적으로 영재교육·예술영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부

모의 욕심과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지적이 전체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학교가 입시 명문고로 전락할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에 있어서 신문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 평준화보다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수월성 교육이 평준화 이념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소외계층의 영재가 영재프로그램에서 탈락할 우려를 드러냈으며, 수월성 교육을 하더라도 평준화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수월성과 평준화를 비교하는 문제 진단은 없었다.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2002년에는 영재를 지도할 영재교육 전문 교사의 부족, 프로그램의 미비, 초등-중등-고등-대학으로의 연계교육의 부재 등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난 2004년 이후에는 영재교육이 수학과 과학 분야에 치우쳐 있다며 예술분야와 저소득층의 영재들이 영재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타났다.

2) 예술영재교육의 발전 과제 및 방향 제시

발전 과제 및 방향은 예술영재교육을 포함하는 영재교육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와 예술영재 중 음악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 제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예술영재교육을 포함하는 영재교육 전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투자와 함께 영재교육이 정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 입시제도가 반영되어 예술분야와는 무관한 내신중심의 선발 방법이 아닌, 각 분야별 판별 기준을 가지고 영재 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영재의 판별과 영재성 계발을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교사 양성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을 위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연수를 영재교육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었다.

2008년부터는 영재교육의 내실화, 영재교육의 인프라 구축 등 영재교육이 확대된 만큼 그 성과의 축적을 꾀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재 아동의 능력과 흥미, 재능에 어울리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영재교육의 철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3) 해외사례 소개 및 해외사례를 통한 방향 제시

해외사례 소개 및 해외사례를 통한 방향 제시에 대한 기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영재교육의 자리가 잡힌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의 사례가 소개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다.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

1) 콩쿠르 등의 경연 소식

콩쿠르 등의 경연 소식에 대한 기사는 예술영재 중 음악영재와 무용영재의 콩쿠르 소식이

주를 이루었다. 음악영재와 무용영재가 재능을 발휘한 콩쿠르의 역사와 권위, 콩쿠르에서의 등수, 입상한 소감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국제콩쿠르의 국내 유치, 국내 예술인이 국제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기사도 있었다. 특히 경향신문의 경우 이화경향음악콩쿠르, 동아일보의 경우 동아음악콩쿠르, 동아무용콩쿠르, 중앙일보의 경우 중앙음악콩쿠르 등을 개척하고 있어 관련 기사가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와 시칠리아 무용콩쿠르에서 한국인 예술영재들이 대거 입상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2) 공연, 전시회, 음반 소식 등

음악영재의 공연, 음악영재가 발매한 음반을 다룬 기사, 미술영재의 작품 전시회, 무용영재가 참여하여 꾸미는 무대 소식 등이 다루어졌다.

3) 음악영재의 특성

앞서 신문기사의 양적 분석 중 예술영재 하위 영역별 기사량의 비교에서 음악영재에 대한 기사가 분석대상에 해당된 전체 522건 중 379건(72.6%)로 가장 두드러졌다. 예술영재 하위 영역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음악영재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음악영재의 특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예술영재 인물소개에 해당하는 기사 중, 음악을 시작한 시기와 음악영재의 특성이 드러난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음악영재는 모두 34명으로 클래식 분야가 28명, 국악영재 6명이다. 클래식 분야 영재의 경우 음악을 시작한 시기가 3세에서 15세 사이로, 3세에서 6세 사이에 시작한 영재가 21명이었다. 국악영재의 경우 4세에서 11세 사이에 국악 교육을 시작하였다.

클래식 분야 영재의 경우 그들이 가진 음악적 특성이 절대음감, 음에 대한 재현 능력, 음악에 대한 집중력, 음악적 감수성, 음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음악적 표현력, 음악적 테크닉, 청지각 능력 등이었음을 소개했다. 이들은 하루 2~4시간의 정도의 연습량을 소화하고 있었다.

라. 예술영재 교육정보

1) 예술영재교육기관과 교육자 소개

지역별 예술영재교육원, 예술영재 양성을 목표로 1993년 설립한 한국종합예술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학교라고 할 수 있는 1953년 설립된 서울예고, 국악인 개인이 뜻을 가지고 세운 국악유치원, 그리고 북한의 예술영재학교로 경성유치원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과거 예술영재교육에 헌신했던, 현재 예술영재를 키우고 있는 교육자를 소개하는 기사도 있었다. 2011년에는 팝페라 가수 임형주씨의 사제로 출연한 '유아예술영재'를 위한 유아학교 설립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2) 예술영재 교육프로그램 소개

예술영재 교육프로그램을 다룬 기사는 방학을 활용한 예술영재캠프, 지역별 문화예술회

관 등의 예술영재 프로그램, 화가나 음악가 개인이 운영하는 예술영재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에는 여러 교육기관의 예술영재를 위한 방학기간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도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마. 예술영재의 사회환경

1) 예술영재를 지원하는 개인, 단체, 기업

기업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메세나에 관한 기사가 주로 나타났다. 음악영재에 대한 악기 지원, 해외 콩쿠르 참여를 위한 항공권 지원, 공연 지원, 저소득층 음악영재를 위한 기업의 뮤직스쿨이나 특별레슨 등을 다룬 기사가 있었다. 기업의 예술영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기사와 함께 한국메세나협의회에 대한 소개, 메세나의 필요성을 다룬 기사도 나타났다. 메세나 외에는 예술에 대한 개인적 관심으로 예술영재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2) 예술영재의 활동공간

미술영재의 경우 작업실과 전시장, 음악영재의 경우 연습실과 공연장, 무용영재의 경우 도 연습실과 공연장과 같이 예술영재들이 활동하는 공연장과 미술관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3) 예술영재를 통한 국제교류

중국에서 선발된 예술영재가 청소년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방한하여 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등 예술영재를 통하여 국제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었다.

4) 지역발전과 예술영재

문화예술도시, 교육도시로의 육성을 꾀하는 등 지역발전을 다룬 기사에서 예술영재교육 센터가 해당 지역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재학교의 프로그램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지역 도시에 개설하려는 계획을 다룬 기사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예술 생태계를 위한 움직임으로 ‘문화골목조성’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

IV. 시사점 분석

본 연구는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9년 7월부터 2013년 9월 까지, 주요일간지의 예술영재 관련 신문기사 1,281건을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와 질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 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의 전체 흐름과 정책을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예술영재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영재교육·예술영재교육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네 번째는 예술영재 영역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의 전체 흐름과 정책의 관련성

신문기사의 연도별 변화를 큰 흐름에서 살펴보면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발표된 2002년과 예술영재학교의 설립 추진 계획,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07~11년)에 예술영재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세부 목표에 넣은 2007년에 기사의 양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관련법이 발표된 해와 신문기사의 양이 증가한 시기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통합교육과정’에 맞추어 예술영재에 대한 교육도 ‘통합형’으로 진행될 것을 예고하는 정부정책이나, 방침들이 11년도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영재교육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이나 예술영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학생 선발방법, 또 다른 영재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틈새시장쯤으로 인식하는 세대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타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술영재와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술영재와 예술영재교육을 위한 정책의 발표와 추진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은 예술영재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음악영재, 미술영재, 무용영재, 문학영재 등의 영역별 정책은 전체 비전 속에서 영역별 예술형식과 특수성에 따라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을 관할하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사이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분석유목 중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에 대한 기사와 예술영재를 지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의 기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예술영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영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재능을 발휘하고, 이렇게 재능을 발휘하는 예술영재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의 증가를 볼 때, 예술영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예술영재 관련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예술영재교육의 발전 방향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기사 중 예술영재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에 대한 기사가 39건, 예술영재교육의 발전 과제 및 방향 제시를 한 기사가 90건으로 나타났다.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에 대한 기사보다 발전 과제 및 방향 제시를 한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문제 진단을 넘어 발전 과제와 방향 제시까지 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소비의 기반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메세나 특별법이 통과된 2009년 이후로 기업들의 후원에 힘입어 11년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와 시칠리아 무용 콩쿠르에서 대거 입상한 바와 같은 쾌거를 이루거나 이러한 인재들이 다시 귀국하여 어린 예술영재들의 멘토로 활동하는 기사를 통해

서 관련 법안의 실효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메세나를 통한 기업의 후원들이 자칫 예술에서도 극도로 국한된 몇 장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룬 기사(동아일보 2012, 5)와 같이 예술영재교육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지적하는 기사도 있었다.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예술영재들이 실생활에 들어와 일반인들과 함께 예술의 순수한 기쁨을 누리고 본인들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여건과 터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와 함께 예술영재 영역 중 음악영재의 육성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미술영재, 무용영재, 문학영재 등에 대한 기사에 비해서 음악영재에 대한 기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과 상관이 있겠다. 또한 예술영재 영역 중 가장 대중적이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영역이 음악영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예술영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과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음악영재에 대한 논의가 다른 영역의 예술영재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음악영재교육에서 지적되고 있는 어린영재위주의 교육과 지원(조선일보, 2013.1)에 관한 기사에서 다루졌듯이, 중견 연주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핀 음악영재, 미술영재, 무용영재, 문학영재 외에도 예술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별 발전 방향은 예술영재교육이라는 큰 그림에서의 비전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영재교육 · 예술영재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문제 진단에서 드러난 신문사별 입장 차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모든 언론들은 영재교육 · 예술영재교육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수월성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신문사에 따른 입장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 확실히를 우려하면서 평준화 때문에 수월성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수월성이 필요하지만 평준화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대표적인 언론사들의 입장차는 영재교육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월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혼돈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자칫 혼재하고 있는 두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면, 평준화는 학교 간 위계를 세우는 서열화의 반대 개념이고, 수월성은 평등성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적합한 평등성과 보편적 수월성이 조화롭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물적·인적 자원, 학교제도 등의 다양화된 교육적 토대에서 공정한 기회제공과 공정성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수월성과 적합한 평등성 모두 개인이 가진 재능·소질·적성·동기·육구 등에 맞추는 것으로 교육의 평등성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월성과 평등성은 영재교육 · 예술영재교육 안에서 조화될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 · 예술영재교육에서 강조하는 수월성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소개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어야 영재교육 ·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발전을 논의할 때 수월성과 평준화의 개념이 혼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예술영재 영역별 인식에 대한 차이

영재성 발현 시기는 음악영재 5세~6세, 무용영재 5세~6세, 미술영재 13세~15세, 문학영재 16세~17세(정진원, 2011)이다. 영재성 발현시기와 예술영재 영역별 신문기사의 순위가 일치한다. 문학영재의 경우 2건으로 기사가 가장 적었는데, 5개 신문사 모두 문학영재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춘문예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춘문예에 대한 기사를 쓸 때, 문학영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하는 개인은 대부분 20대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영재라고 하면 아동을 지칭(Tannenbaum, 1983)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영재 영역별로 보이는 차이는 영역별로 영재성의 발현 시기가 다르고, 영재를 아동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예술영재 인물소개 기사를 통해 음악영재가 음악을 시작한 시기, 그들이 가진 음악적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시작한 시기는 3세~6세가 가장 많았다. 음악영재의 영재성 발현 시기가 5세~6세이며 7세 미만에 음악적 능력을 나타낸다고 한 것(정진원, 2011)과 일치한다. 음악영재가 3세~6세 사이에 음악적 재능을 드러내고 음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는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2007년 발표된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예술영재교육대상자를 초등 1년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공식적 음악영재교육의 시작이 음악영재가 재능을 발휘하는 시기와 다르다. 재능을 놓치지 않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재성이 드러나는 시기에 맞추어 음악영재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음악영재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예술영재교육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예술영재교육은 영재성의 발현 시기와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

V. 결 론

연구결과와 논의를 종합하여 크게 다섯 가지로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1999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예술영재 관련 신문기사는 1,281건으로 연구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기사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에 관한 기사와 예술영재를 지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통해 예술영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사양의 흐름과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 2000년을 영재라는 언어의 공식화,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2002년을 영재교육의 공식화, 대구예술영재교육원과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등이 설립된 2005년을 예술영재교육의 공식화, 독립적인 예술영재학교의 설립 계획이 추진되는 등 예술영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2007년을 거쳐, 메세나특별법 등 예술영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가 넓어진 2009년과 2012년 과학예술영재학교 2개교의 지정까지 예술영재교육에 사회적 인식이 꾸준히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예술영재 관련 정책의 현황과 동향을 다룬 기사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2002년,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이 발표된 2004년, 독립적인 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계획이 발표된 2007년에 평년보다 상승하였다. 예술영재 관련 정책이 발표될 때, 예술영재를 다룬 기사가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발표가 예술영재와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예술영재에 대한 정책의 경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도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영재교육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이 논의 중에 있는 매세나특별법 등이 있다. 따라서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법률의 중복이 원활하게 조율되고 협의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는 예술영재의 경우 그 영역별로 영재성의 발현 시기가 다르고, 영역별 예술의 특성과 형식이 다양하다. 따라서 예술영재 영역별로 그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지원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성현 외 (2004). **대중 매체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한나래.
- 김재은 (2006). **예술영재 육성의 방략**. 한국예술영재학회(편저). 예술영재교육(122-135). 서울: 미진사.
- 박경빈 (2012). 한국 영재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영재학회**, 22(4), 821-839.
- 박도순 (2001).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반현, 김남이, 노혜정 (2010). 한국 경제에 관한 국내외 언론보도경향 비교분석연구. **한국언론학회**, 54(5), 397-422.
- 백중열 (2008). 초등미술교육의 현황과 미술영재의 육성방안. **한국미술교육학회**, 22(2), 211-227.
- 송도선 (2005). 동양 사상에 담긴 영재의 개념. **교육문제연구**, 22, 95-117.
- 오레지나 (2007). **예술영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모형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오수정 (2008). 인터넷 영향력과 신뢰도 상승-신문 정기구독률 지속적 하락. **신문과 방송**, 7월호, 146-149.
- 유일상 (2006). 신문의 기능과 신문관계법. **한국언론법학회**, 5(1), 143-189.
- 이정규, 김현철, 이윤옥 (2005). 영재의 인지적 특성 연구-3개영역별(문과, 이과 예술) 영역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9(4), 953-971.
- 이혜영, 강영혜, 박재운, 김태은, 한준 (2007). **교육비전 중장기 계획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 박성익, 이윤미, 허경철, 박찬규 (2006). **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정진원 (2011). 음악영재교육과정 모형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교**

육학회, 40(1), 1-31.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영국의 예술영재교육 교사지침서 (2006).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참고자료 1**.

Berelson, B. (1959). The state of communication,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23(1), 1-6.

Gagne, F. (2008). Building Gifts Into Talents-Talent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MGT. *News & Science*, 19, 27-30.

Gardner, H. (1993). *Frames of mind*. Fontana Press.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Books.

Gardner, H. (2006). *Multiple Intelligences: New Horizons*. New York: BasicBooks.

Marland, S. P. Jr. (1971).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Volume I: Report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the U.S. Commissioner of Educ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Tannenbaum, A. J. (1983).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Renzulli, J. S. (2005). Equity, Excellence, and Economy in a System for Identifying Students in Gifted Education Programs. Retrieved May 3, 2010, from <http://www.gifted.uconn.edu/nrcgt/nrconlin.html>.

한국언론진흥재단 카인즈 <http://www.kinds.or.kr/>

조선일보 아카이브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

중앙일보 미디어 검색 <http://find.joins.com/mediaSearch/>

최종검색일자(2013.10.1.)

= Abstract =

Change of Attitude Toward the Artistically Gifted: Seen through Newspaper Articles from 1999 to 2013

Kyungbin Park

Gachon University

Hyun-jin Park

Gachon University

HyeJeong Yoon

Gachon University

Conceptions toward the artistically gifted were investigated through analyzing newspaper articles from 5 major newspapers for 14 years beginning from 1999 to 2013. There were a total of 1,281 articles having to do with artistically gifted, and showed a steady increase in number of articles as the years went by. Largest number of articles were about musically gifted, and an increase in number of articles were observed following new implementations in law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policy development for the artistically gifted are discussed.

Key Words: Artistically gifted, Musically gifted, Newspaper analysis, Attitude

1차 원고접수: 2013년 10월 10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10월 26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10월 26일